

Robert Chisholm 박사, 사무엘상하, 사무엘상하,

세션 4

사무엘상 5-6

© 2024 로버트 Chisholm 및 Ted Hildebrandt

사무엘 상하를 가르친 Dr. Robert Chisholm입니다. 이것은 네 번째 세션, 사무엘상 5-6장입니다. 방주는 약간의 피해를 입힙니다. 방주가 집으로 향합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법궤가 블레셋 영토로 어떻게 갔는지 이야기하는 사무엘상 5장과 사무엘상 6장을 살펴볼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가 도착했을 때 상황이 좋지 않아 결국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습니다. 우리는 지난 공과에서 주님께서 사무엘을 그분의 선지자로 부르신 사무엘상 3장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법궤를 가지고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기로 결정했는지를 묘사하는 사무엘상 4장을 살펴보았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2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대로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그날 죽임을 당했고, 엘리 자신도 이스라엘이 패했다는 나쁜 소식을 듣고 죽었습니다.

그에게는 너무 많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게다가 그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그 이름을 이가보드라 하였는데 그 영광이나 영광이 사라졌으므로 그 아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날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어두운 날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빼앗아 자기 영토로 가져갔습니다. 우리는 5장에서 그 이야기를 다룰 것입니다. 제가 제목을 붙인 이 장의 제목은 The Ark Does Some Damage입니다.

이 장의 주된 주제는, 여호와가 패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결국 그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갔으나, 여호와가 패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방주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주권자이며 무적입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일 뿐이며,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장 1절의 이야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NIV 1984년판을 읽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은 후, 전쟁터였던 에벤에셀에서 블레셋 다섯 성읍 중 하나인 아스돗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법궤를 다곤의 신전으로 옮겨서 다곤 옆에 두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잠시 멈추고 다곤 신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의 주요 신이며 다곤의 본질에 관해 수년에 걸쳐 약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관점, 소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그것을 고수하고 있으며 대중적인 수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래된 견해는 히브리어 개가 물고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다곤이 물고기 신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나를 삼킨 것은 개였습니다. 그리고 가끔 히브리어에서 "-on" 어미는 "-on"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 이는 어떤 것이 그 앞에 오는 단어와 같아서 물고기와 같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곤 신은 때때로 물고기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해안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은 물고기 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곤을 풍신의 신이나 곡식의 신으로 보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우가리트어에서는 우가리트 이스라엘 북쪽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곳에서 우리는 서판을 발견했고 그곳에서 가나안 종교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가리트에는 곡식을 뜻하는 다가 누(daganu)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곤은 아마도 곡물의 신이거나 낱씨의 신일 것입니다.

어쨌든 그는 바알과 같은 다산의 신입니다. 그리고 보라, 이 본문에서 바알은 다곤의 아들, 즉 다곤이 그의 아버지로 언급된다. 이제 어떤 구절에서는 높은 신 엘이 바알의 아버지로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에게 아버지가 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두 가지 다른 전통이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이러한 셈족 언어에서는 아버지가 할아버지나 조상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엘은 모든 신을 낳은 높은 신이고 바알의 할아버지일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 아버지는 다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생각에는 다곤과 바알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본적으로 다산의 신이고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을 그들의 주요 신으로 선택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사사기에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많은 거래를 했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팀나의 신부가 다른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 너무 화가 나서 블레셋 밧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제 다곤이 곡식이나 풍토의 신이라는 것이 맞다면 그는 다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제공한 농작물을 불태워 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를 냈습니다. 그들은 삼손을 잡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그 자신의 어리석음과 들릴라의 도움으로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어느 정도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삼손은 그 과정에서 죽고 그 위에 먹구름이 드리워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곤 신전을 무너뜨립니다. 실제로 본문에서는 떨어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 그가 자신의 경력 동안 죽인 것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상당한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과 관련하여 이전에 다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다곤의 신전을 무너뜨린 그날, 다곤의 신전이 크게 무너졌습니다.

글쎄요, 다곤 자신도 이 구절에서 크게 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알 신에 대한 논쟁과 다곤 신에 대한 논쟁.

그리고 그 논쟁은 이 구절에서도 계속될 것입니다. 7장에 이르면 바알 논쟁이 어떻게 사사기를 거쳐 사무엘상으로 발전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따라서 배경 정보를 염두에 두고 여기에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이튿날 아스돗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매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라. 그러니 사진을 찍어보세요.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자 법궤 앞에 절하고 있는 다곤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문화권에서는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절을 하는 것은 대개 복종이나 우월성을 인정한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다곤은 법궤로 대표되는 야훼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그들은 다곤을 빼앗아 다시 그 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의 중요성을 정말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곤을 방주 앞에 다시 세워 놓았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 그들이 일어나 보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만 빼면 똑같습니다. 그의 머리와 손은 부러져 문턱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시체만 남았다.

그래서 다곤은 목이 잘리고 절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투에서 전사들이 때때로 패배한 적의 머리를 자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런 일을 행하여 머리를 지켰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트로피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도 사울에게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전사들은 때때로 이런 일을 하곤 했습니다. 손에 관해서는 똑같습니다. 때로는 패배한 적의 손이 잘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그것들을 세기 위해 쌓아두곤 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우가리트의 이러한 신화적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매우

호전적인 여신 아나트가 전투를 즐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는 패배한 적들의 머리로 만든 목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패배한 적의 손에 부착된 벨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희생자들의 머리와 손이 그녀에게 붙어 있는 승리의 전사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지 폭력적인 이미지만은 아닙니다.

이는 다곤이 야훼보다 열등할 뿐만 아니라 야훼께서 다곤을 자신의 성전에서 쳐서 모욕을 당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블레셋 사람들은 여기서 요점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곧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병인학적 논평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 이유입니다. 때로는 히브리어 이야기에서 이러한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역사에 뿌리를 둔 오늘날의 관행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11장에는 이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병인이라고 부릅니다. 현대의 관행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다곤의 제사장들과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다른 사람들은 문지방을 밟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와 손이 문지방에 누워 있었고, 그래서 신이 문지방을 만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종의 신성하고 특별하게 만듭니다.

더 이상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금기시되는 일입니다. 신이 만진 것을 우리는 만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서 그들은 문지방을 넘어서서 거기에 접촉하지 않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곤 신전에 있는 법궤로 대표되는 여호와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주요 신을 모욕하셨습니다. 그보다 앞서 삼손 시대에 다곤의 성전이 크게 무너졌습니다. 이제 여기 아스돗에서 다곤 자신도 크게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 본문에서 두 가지 모두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6절, 여호와와 그의 손이 아스돗 사람과 그 인근 지역을 엄중히 내리셨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며 악성 종양으로 그들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는 약간의 아이러니, 어쩌면 유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글을 쓰면서 작가가 웃는 모습이 보이네요.

여호와와 그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엄중하게 내리셨다. 아이러니하게도 다곤은 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강한 손을 가지고 아스돗 사람들을 엄중하게 쳐서 종기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리신 이 고난의 성격에 관해 약간의 논의가 있습니다. 종양으로 번역된 용어는 말 그대로 언덕이나 둔덕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부종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일종의 질병, 아마도 선페스트 같은 질병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치셨습니다. 그 주요 증상 중 하나는 겨드랑이와 사타구니의 림프샘에 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에 유리한 점은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와 그의 진노를 막기 위해 약간의 마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할 때 그들이 법궤를 돌려보낼 때를 기억하고 저절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 작은 황금 쥐와 황금 종양을 여호와께 드리는 속건제, 말하자면 속죄 제물로 만들어 그분을 달래려고 합니다. 음, 쥐는 선페스트의 보균자이며 그것은 고대 세계에서 인정된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쥐들이 나타났을 수도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 고난이 그들을 통해 온 것임을 인식했기 때문에 주님은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 쥐들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황금쥐나 생쥐를 만들겠습니까? 사실 원문을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는 한 그리스어 사본에는 그가 아스돗 사람들을 황폐화시키고 아스돗과 그 주변 지역에 종양을 쳤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쥐를 키웠고 그들은 배에 떼를 지어 모였고 쥐들이 땅으로 올라갔고 도시에는 치명적인 공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쥐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조정하기 위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고대의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라, 블레셋 사람들이 황금 쥐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전통이고 해석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부기, 종양을 향문 궤양 및 치질로 이해하는 해석이 있는 히브리어 성경의 여백에 보존된 또 다른 전통이 있습니다.

야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런 종류의 종기를 일으키는 이질을 주셨다고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이 고난의 성격에 관해 약간의 논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7절에 보면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와 우리 하나님 다곤을 치는 그의 손이 무겁기 때문이니라.

그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신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여기에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를 제거해야 해요.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아서,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겼더라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가드 주민들이 “고마워요 통치자들이여, 왜 우리를 뺐으셨습니까?”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을 옮긴 후에 여호와의 손이 그 성을 더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곳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서 상황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패닉은 점점 커지고 상황은 좋지 않다. 그는 그 도시 사람들의 노소를 막론하고 악성종양으로 그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첫 번째 패널에서 본 것처럼 통치자를 불러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패널에 관해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방주를 그들의 또 다른 도시인 에그론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으로 들어갈 때에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방주가 도착하는 것을 봅니다.

아무래도 소식이 퍼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들었고 거기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아서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게 놔두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을 것입니다. 죽음이 그 도시를 공포로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방주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음과 멸망을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죽지 아니한 자들은 독종으로 고통을 받으며 그 성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느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토에 약간의 피해를 입히고 계십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을 갖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크다는 것, 적어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는 그를 대표하는 법궤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등장하는 몇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된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여호와께서 이방 신들보다 더 강력하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은 이집트에서 이 일이 일어나기 전 이스라엘의 역사 전반에 걸쳐 그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번이고 가나안 영토로 들어왔습니다.

주님은 이 이교도 신들보다 더 강력하시며, 그분의 능력은 그분의 임재를 단순히 눈으로 상기시켜 주는 그 어떤 것보다도 뛰어납니다. 그러므로 형상을 통해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교훈은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은 우리를 6장으로 인도하는데, 그것은 물론 이 이야기의 계속입니다. 나는 6장의 제목을 The Ark Heads Home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의 주요 주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법궤가 그들의 영토에 도착하자 이를 인식했습니다. 6장에서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영토에 있는 지 일곱 달이 되어 그곳에서 얼마 동안 손상을 입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술가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어찌할꼬 하매 여호와의 궤와 함께? 어떻게 하면 원래 위치로 돌려보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므로 제사장과 점술가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들은 종교 전문가들이다. 우리에게 친숙한 성직자. 그들은 신과 그의 백성 사이를 중재합니다.

점쟁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점술이 매우 흔했습니다. 그리고 점술가들은 신성한 뜻, 즉 신 또는 신들의 뜻을 결정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를 수행하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 율법은 신명기 18:10에서 점술이나 적어도 한 종류의 점술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고대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아주 흔했습니다. John Walton은 그의 책 중 하나에서 이에 대해 논의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대 세계에는 점술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실제로 두 가지 범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감을 받은 것과 연역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는 영감받은 점술은 신성한 영역에서 시작되며 인간 중개자를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점술은 공식적, 비공식적 예언과 꿈의 형태를 취했습니다. 글쎄, 우리는 예언과 예언적인 꿈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운영하셨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점이라고 부릅니다. 내 생각에 우리는 그것을 단지 예언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점술을 금지할 때, 그것은 실제로 존 월튼이 말한 다른 유형의 점술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신의 영역에서 유래하지만 그 계시는 관찰할 수 있는 사건과 현상을 통해 전달되는 연역적 점술입니다.

법이 금지하는 것은 이러한 연역적 유형의 점술입니다. 주님은 선지자와 꿈을 통해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그 문화에서 널리 퍼져 있던 연역적 방법을 승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목록화한 수많은 태블릿과 책을 보관할 것입니다.

연역적 점은 능동적이거나 수동적일 수 있는 징조의 해석을 포함합니다. 그들은 때로 우리가 동물을 제물로 바치려는 것처럼 동물의 내장을 살펴보곤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라서 열었습니다.

우리는 내부 장기를 살펴보고 이상한 점이나 기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신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해 무언가를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을 것입니다. 그들은 때때로 징조를 찾기 위해 하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만약 여우가 길을 가로질러 갔다면, 뭐, 그건 평범한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날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기 위해 매우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그리고 나쁜 일이 생기면 길을 건너는 여우는 나쁜 징조입니다. 실제로 어느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면 이 모든 것을 추적합니다. 따라서 다음에 여우가 같은 방향으로 길을 건너면 이제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때때로 하는 일은 카운터를 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마법을 통해 이에 대응할 방법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것을 반대의 징조인 Namburbis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신은 사람들이 개입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신 앞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반격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신들이 같은 페이지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신은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만 다른 신은 당신 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의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은 매우 복잡한 종류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이 이교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신성한 뜻을 결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직접 말하리라. 때로는 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일을 막으려고 마법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렵다면 나에게 기도해주세요. 그러므로 이 블레셋 점술가들이 하는 일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 상황에 휘말리는 것은 당연하다. 상담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 전문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을 대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내려면 빈손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그에게 속건제를 보내라.

아니면 보상 제물. 배상을 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화나게 한 게 분명해요.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당신은 그의 임재의 상징을 취함으로써 그를 화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제사를 드려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치유될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왜 그 사람의 손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가 그에게 무슨 속건제를 보내야 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제물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그러자 그들은 5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다섯 개는 블레셋의 주요 다섯 도시를 대표하는 것 같아요. 그 중 일부는 이미 이야기에서 언급되었습니다. 금 종양 5개.

이 종양과 관련된 고통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이 황금 종양을 만들 것입니다. 여기에는 일종의 동정적인 마법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 그들이 하려는 것은 고통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금쥐 다섯 마리. 그리고 우리는 앞서 쥐나 생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을 괴롭힌 전염병의 운반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블레셋 통치자의 수에 따라.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일한 재앙이 너와 네 통치자들에게 닥쳤기 때문이다. 국가를 파괴하는 종양과 쥐의 모델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어쩌면 그 사람이 너와 네 신들과 네 땅에서 손을 떼게 될지도 모른다. 그들은 이것에 대해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 이 보상 제물을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금은 큰 가치가 있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 이런 것들을 줌으로써 그분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그들은 또한 전염병을 퇴치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들이 생각해낸 일종의 임시 해결책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전에 이런 것을 접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여기 6절에서 그들이 말할 때 그들은 거의 선지자처럼 들립니다.

그들이 자기 백성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애굽 사람과 바로와 같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느냐? 흥미로운. 그들은 이집트에서 파라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기를 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학대하시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어 자기 길로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 신에게 존경과 존경을 보여주십시오. 블레셋 점쟁이들이 동족에게 전한 좋은 소식으로, 나중에 이스라엘 독자가 마음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그런 존경심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 카트를 준비하세요. 이제 율법에 규정된 법궤를 운반하는 합당한 방법이 생겼습니다.

장바구니에 담지 마세요.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실제로는 당신이 그것을 착용하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채를 가지고 들고 다녔습니다.

카트에 담지 마세요. 다윗은 나중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할 때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사무엘하 6장까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 논의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끼를 낳고 멩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소 두 마리를 태울 새 수레를 준비하십시오. 소를 수레에 매세요. 그러나 송아지를 빼앗아 가두어 두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엄마들은 아기와 함께 있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가 정말로 그들에게 임한 능력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곳에서 거의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것을 결정하는 좋은 테스트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실으세요. 그리고 그 옆 상자에 속건제로 그에게 돌려줄 금 그릇을 넣어라.

도중에 보내되 계속 지켜보십시오. 만일 그 땅이 벳세메스로 향하면 여호와께서 이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셨느니라 즉, 만약 이 소들이 기꺼이 새끼를 남겨두고 이스라엘 방향으로 향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이 일의 배후에 계셨다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된 것임을 우리가 알리라 그들은 우연이나 행운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단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어떤 원인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야훼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했고 그런 소 두 마리를 수레에 매고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두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궤를 수레에 싣고 금쥐와 종양 모형이 들어 있는 상자도 함께 실었습니다. 그러자 소들은 벳세메스 쪽으로 곧장 올라오며 길을 따라가며 내내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들은 울부짖고, 방주를 이스라엘로 가져가고, 새끼들은 남겨두고 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들을 따라 벳세메스 경계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는 이제 이스라엘의 한 성읍으로 돌아왔습니다. 13절,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고 있더라.

그리고 그들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광경을 기뻐했습니다.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발에 이르러 그곳 큰 바위 곁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저자는 장면을 시각화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수레의 나무를 패고 소들을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나는 그것이 실제로 승인된 희생이었다고 믿지 않습니다.

수컷 황소를 바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레위인이여, 좋습니다. 레위인이 법궤를 맡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께 금 그릇이 담긴 상자를 내려 큰 바위 위에 두었습니다. 그 날 벳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가 같은 날 에크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에 이 모든 피해를 입히신 분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셨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7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 속건제로 보낸 금종기들이니라 블레셋 사람의 다섯 성읍 아스돗과 가사와 아스글론과 가드와 에그론과 오대폴리스를 위하여 각각 하나씩니라. 그리고 금궤의 수는 다섯 방백에게 속한 블레셋 성읍들 곧 견고한 성읍들과 그 시골 마을들의 수대로였더라. 그들이 여호와께를 세던 큰 바위가 오늘까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발에서 증거하느니라.

또 다른 병인학적 설명. 그 바위는 특별해요. 그곳으로 내려가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의 증인으로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여행 중에 잠시 멈춰서 살펴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보고 이 이야기와 그 신학적 중요성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벳세메스 사람들에게 진정한 해피엔딩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벳세메스 사람들 중 몇 사람을 쳐서 쳐죽이셨는데, 이 특별한 번역은 그들이 여호와께를 들여다보았다는 이유로 그 중 70명을 죽였다는 더 낮은 숫자의 전승을 따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백성이 슬퍼하며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방주는

여기서 누구에게로 올라갈 것인가? 그러자 그들은 기랴여 아림 사람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돌려 보냈습니다. 내려와서 자리로 가져가세요.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방주는 블레셋 영토와 이스라엘 본토에 약간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제 벧세메스 사람들은 정확히 무엇을 했습니까? 본문은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어로 이 문구가 때로는 실제로는 보다 자주 의미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단순히 방주를 바라보았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말은, 그것이 도착했을 때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것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아마도 그들이 그것을 조사했다는 뜻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이는 그들이 그것을 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만졌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6장 후반부에서 다윗이 궤를 부적절하게 운반할 때, 웃사라는 사람이 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을 것입니다. 그는 선한 의도, 좋은 의도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법궤를 만졌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치사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들이 방주를 만지고 들여다보았을 것이고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명? 글썄, 그것은 일종의 논쟁입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 더 큰 숫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약간의 변형이 있습니다. ESV에서는 70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NASB로 가면 더 큰 숫자가 나옵니다. 50,070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당한 변형입니다. 50,000인가요?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70인가요? 50,070인가요 아니면 그냥 70인가요? 그것이 문제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텍스트 증거는 낮은 숫자에 비해 다소 빈약합니다. 요세푸스는 그 숫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하나의 그리스어 사본이 있지만 몇 개의 히브리어, 중세 히브리어 사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메모에 따르면 요세푸스는 그 숫자가 더 적습니다.

나는 더 작은 숫자가 아마도 정확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50,000은 너무 큰 숫자입니다. 이 많은 숫자는 역사서에서 다루기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고고학자들은 자신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영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지 추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은 총합이 75,000명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Beit Shemesh에서 인구의 2/3가 사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많은 숫자에 대해 복음주의 학자들은 다양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숫자가 의도적으로 부풀려졌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것은 문학적 장치이다. 여기 Dallas 신학교의 동료 중 한 명인 Ron Allen은 숫자에 대한 논평을 썼고 그는 이러한 관점을 취했습니다.

나의 이전 학생 중 한 명인 David Fouts가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는 고대 근동 세계, 특히 군사적 맥락에서 숫자가 부풀려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대 역사학의 기준으로 성경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그 자체의 문화적 맥락에서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것이 우리가 여기에 갈 것입니다.

천으로 번역된 이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단지 천 명이 아니라 더 적은 수의 사람들의 어떤 단위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토론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학자들과 해석가들은 여전히 이 숫자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토론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0,070이라는 숫자는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의 또 다른 예가 열왕기상 20장 30절에 나옵니다.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성 아벡으로 도망하고 성벽이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아람 사람 10만 명을 죽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마을로 들어갑니다. 이 마을들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들은 현대적인 대도시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27,000명이 사망했다고요? 정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이 부정확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성경이 아마도 수사적 장치를 사용하여 숫자를 부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과장일 뿐입니다. 강조를 위해 과장한 경우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했을 문화 속에서 받아들여진 문학적 장치.

아니면 우리는 엘레 프 천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27개의 군사 유닛이 될 수도 있고 그와 비슷한 것이 훨씬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입니다.

그건 해석상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현시점에서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50,000이든, 70이든, 아니면 단지 70이든, 그건 그렇고, 7의 배수로서 완전성과 철저한 종류의 파괴를 암시할 것입니다. 방주는 약간의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법궤를 만져보고 들여다본 베이트세메스 사람들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느냐'고 말하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주님이 거룩하시고, 구별되시고, 유일하시고, 구별되신다는 사실이 그들을 두렵게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우리가 앞선 과에서 공부했던 노래를 통해 주님이 거룩하시다는 사실을 찬양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녀는 “너희도 알다시피 거룩한 자들 중에 거룩한 자는 여호와뿐이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분만이 참으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그것은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주님은 구별되십니다. 그는 독특해요.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위해 중재하시거나 자신의 백성을 대신하여 개입하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매우 무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입장에 있거나 하나님의 기준을 어기고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하심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가 기념하는 매우 긍정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는 그분이 자신의 백성을 대신하여 공의를 행하실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보는가는 당신과 그분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한나는 주님과 좋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녀는 경건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녀는 그것을 축하했습니다.

벧세메스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합당한 존경심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이 방주 이야기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상자나 이미지에 국한될 수 없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는 방주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법궤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를 통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는 방주보다 더 큼니다. 그분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존경심을 보여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점쟁이들은 사람들에게 그를 존경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를 존경하세요. 그리고 벳세메스 사람들도 그 교훈을 배웠습니다. 이 장은 다소 부정적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3장 이후로 여기에 없었습니다. 음, 그는 사무엘서에서 가장 격려적인 장 중 하나인 사무엘상 7장에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가르친 Dr. Robert Chisholm입니다. 이것은 네 번째 세션, 사무엘상 5-6장입니다. 방주는 약간의 피해를 입힙니다. 방주가 집으로 향합니다.